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 작은마음

제 2125호 2020. 3. 1. 사순 제1주일

제1독서 : 창세기 2,7-9;3,1-7
제2독서 : 로마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12-19 또는 5,12.17-19
복 음 : 마태오 복음서 4,1-11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희 발레리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신부님 말씀

#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는 법

3지구 수색 성당
함승수 세례자요한 신부님

이번 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돼요. 사순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큰 고통을 겪으시고 마지막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시기이지요.

이 시기의 첫 주일 복음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유혹'이라고 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오늘 복음을 보면 다른 분도 아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활동, 즉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악마는 예수님께서 가장 지치고 힘드신 때에 그분을 찾아가 첫 번째는 '빵'으로, 두 번째는 '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셔야지'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으로 유혹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서 그 뿌리치기 힘든 유혹들을 이겨내셨답니다. 악마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먼저 선택하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인 '성경 말씀'을 먼저 선택하심으로써 그 유혹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

우리 친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마의 속삭임'을 들을 때가 많을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아'라는 유혹,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라는 유혹 등등. 그런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될지를 잘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하겠어요. 혹시라도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하느님께 지혜를 달라고,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청해보도록 해요.

소금통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악마에게 무엇을 받으셨나요?

① 칭찬 ② 유혹 ③ 비난 ④ 선물

♥ 똑똑똑! 예수님, 우리 왔어요. ♥

도란도란 성경여행

##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다 (사무엘기 하권 2, 5-7)

"여러분의 주군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다 집안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 유다의 임금이 된 다윗의 왕관과 같은 왕관을 찾아보세요.

다 윗

①

②

③

④

그림_이지영 카타리나

글/그림 최진태 임마누엘

◆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마태 4,10) ◆

# 작은생명

부터 사랑하는 우리들의 약속

## 1. 생명의 시작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특히 아주 작고 연약해서 우리의 관심과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작은 생명부터 사랑하는 실천을 함께 해나가 보아요.

살아있는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신비로워요.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자연 모두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은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피워나고 자란답니다. 하느님께서는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장하는 은총과 축복, 기쁨과 용기도 듬뿍 주세요.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들에게 따뜻한 눈길과 마음을 전해보아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3월 만들어 가요.

♣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기도 하기
♣ 함께함에 감사하며 가족 안아주기
♣ 새 학기 짝꿍을 위해 배려하기

글_ 가톨릭대학교 생명 대학원 독서동아리 '공책'

여러분의 '작은생명' 실천사례를 보내 주세요.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양식: 사진, 그림, 기도문, 글 등 (기한 : 2020.3.31.) 접수처: littlevita2020@naver.com

###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